

전남

장성 '국립 심혈관센터' 유치 본격화

내일 추진위 공식 출범... 접근성·전대병원 인접성 등 최적지 평가

장성군이 미래 성장동력이 될 '국립 심혈관센터'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장성군은 13일 남면 삼태리 나노바이오 연구센터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이낙연 의원, 김양수 장성군수를 비롯해 KIST, 전대병원, 동산대 광주한방병원 등 의료 전문가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

이날 출범식에는 장성군과 전남도, 광주시 관련부서와 광주전남 지역병원장, 언론계 대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27인의 자문·추진 위원에게 위

촉수 수여하고, 현판식을 하는 등 국립 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앤지메디칼, 현진기업 2개 기업과 투자협약식을 하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스텐트 연구소와 스텐트공장 견학도 할 예정이다.

출범식에 이어 2부 행사로 심혈관 관련 기술 및 산업현황 세미나가 열려 보건복지부 박현영 과장, 전남대 병원 정병호 교수 등이 심혈관계질환 관련 국내 과학기술 개발 현황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군은 추진위원회의 국립 심혈관

터 장성군 건립을 위한 유치 당위성 홍보 등 대정부 설득과 다양한 유치 활동 전개로 국립 심혈관센터 최종 유치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국립 심혈관센터 유치를 위해 나노 산업단지 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지난 2007년 5월 전남대와 공동으로 국립 심혈관센터 유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토마스(Thomas), 독일 켈리메드(Qualimed)사, 에이엠지 코리아사, 전남대의대, 나노생물실용화센터, 광주과학

기술원 고등과학기술 연구소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심혈관계질환 치료기 국제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은 교통의 요충지로 접근성, 전남대병원 등 전문의료기관과의 인접성 등에 있어 국립 심혈관센터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추진위원회의 공식 출범으로 국립 심혈관센터 유치 전망이 더 밝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 심혈관센터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질환 환자를 치료하고,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흥군 정남진 토요시장내에 설치된 드라마 '대물' 세트장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장흥군은 세트장을 통해 지역관광지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광양, 동네기상정보 제공 기상관측소 설립

광주기상청 공동협력 MOU... 마동 근린공원에

광양시 마동 근린공원에 동네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기상관측소가 세워진다.

광양시가 지역 기후변화 체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상청 공동협력 광양기상관측소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

그동안 광양시는 관내에 기상관측소가 없어 인근 도시의 기상대 자료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지역의 기후특성이 다르고 국지성 호우 등 기상재해가 잇따르면서 기상관측소 설립을

추진해 왔다. 시는 1억원의 소요 사업비를 확보해 풍향·풍속·기온·습도·강수량·기압·일조·일사 등 기상관측장비 시설을 구축하고자 기상청 설립조건에 합당하는 여러 후보지 중 기상청과 협의한 결과 마동 근린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현재 전남도 내에는 여수, 순천, 목포, 완도, 진도, 흑산도 등 기상대와 고흥, 강진, 영광, 해남, 장흥, 보성 등 기상관측소가 있다.

이번 협약체결로 기상관측소가 설립되면 품질확보를 위해 시범운영을 거쳐 오차범위를 줄인 뒤 내년부터 공식 기상자료로 활용된다.

광주 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공동협력으로 설립하는 만큼 보다 정확한 기상관측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측업무 및 기술지도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기상관측소가 생기면 기상감시와 기상자료 축적이 가능해져 광양지역의 정확한 기상예보는 물론 자연재난 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안수희기자 70su@

"여순사건 여수 희생자는 124명"

진실화해위, 국가에 사과·위령사업 등 권고

여수지역사회연·유족 "총체적 진실규명 안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여수·순천(여순)사건' 당시 여수 지역에서 민간인 124명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것으로 확인했다. 11일 진실화해위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서 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진실규명 조사결과와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을 여수시와 진실규명이 결정된 유족에게 전달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1948년 10월 말부터 이듬해 8월까

지 여수 일대에서 국군과 경찰에 의해 민간인 124명이 불법적으로 집단 학살됐으며, 이 중 91.9%가 10대에서 30대 청년 남성인 것을 확인했다.

또 진실화해위는 계엄령 아래 군·경이 가담혐의 추정만으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즉결 처분을 남발, 민간인을 학살했음을 밝혀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사과와 위령 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

부 정정 ▲역사기록 정정 및 수록 ▲평화헌법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2006년 7월 시작해 4년여 만에 결실을 본 이번 조사결과는 당시 사건이 국군과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자행됐음을 국가가 인정하는 셈이다.

이번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유족들은 "당시 희생자 추정 인원(1300여명)의 10분의 1만이 인정됐다"며 "여순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된 여수 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등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총체적 진실규명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높은 온도 잘 견디는 김품종 개발

수산과학원-전남대, 고온내성 유전자 발굴 성공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고온내성 김 품종 개발의 길이 열렸다.

국립 수산과학원 해조류 바이오연구센터는 김에서 높은 온도를 잘 견디는 고온내성 유전자 발굴에 성공, 특허출원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조류 연구센터는 전남대 최홍욱 교수 연구팀과 함께 '모두너들김'에서 고온내성 유전자(HTR2)를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이 유전자를 고온 민감성 박테리아와 모델 조류인 '플라미도모나스'에 삽입한 후 형질 전환체가 고온에 대해 내성을 획득했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결과는 해조류 분야의 저명

국제 학술지에도 실린다.

김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자라는 해조류인데 양식기간 수온이 높아지면 갯벌에 걸리거나 생리적 장애가 생겨 양식 김 생산량이 크게 줄어 높은 수온에서도 잘 자라는 신품종 개발이 절실했다.

연구센터 관계자는 "최근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바닷물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번 연구성과가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김뿐 아니라 미역, 다시마, 우뚝가사리 같은 다른 해조류의 고온내성 품종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쌀값·농민생존권 보장하라"

보성군 쌀 대책위, 오늘 '농민대회' 수확포기 파업

본격적인 벼베기 시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보성지역 농업인들이 나락수확을 포기하고 콤바인(수확기) 파업에 나선다.

보성군 쌀 대책위는 12일 오전 10시 보성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앞에서 쌀값보장과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보성군 농민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는 농업인 300여명이 하수 수확을 포기하고 콤바인 200여대를 몰고와 농기계 파업과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격리조치에 대해 기대감을 가졌지만 20년전 나라가격으로 폭락한 현실

에 농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농협은 적자 탓을 농민에게 돌리고 수확판매와 사후 정산제를 동원해 시세의 80%만 지급하면서 나락값 폭락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쌀 50만t 즉각 대북지원 ▲쌀 목표가격 21만원(80kg)으로 인상해 쌀 생산비 보장 ▲나락값 폭락 선도하는 농협 규탄 등을 주장했다.

전능 광주전남연맹 박창대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농협의 변화가 없는 한 수확기가 끝나는 대로 다음달 초 2차 농민집회와 3·4차 농민대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흥기자 song@

"다문화가정의 건강, 우리가 책임진다"

나주중앙병원-지원센터 협약... 441가구 의료지원

나주중앙병원(원장 박용선)이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센터장 손경희)와 협약 맺고 지역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지원 사업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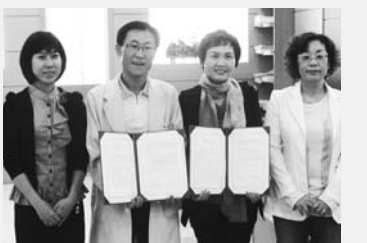
나주중앙병원은 최근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병원 2층에 새롭게 마련된 종합 건강검진센터에서 양 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지원사

회 정착을 돕기 위해 체결된 이번 협약은 나주 중앙병원이 다문화가족이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정비율을 자부담으로 지원한다는 것.

이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441가구의 다문화 가정의 취약한 의료혜택에서 벗어나 단순한 1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의료 혜택을 받게 됐다.

박용선 대표위원장은 "다문화 가



정을 시작으로 장애인, 참전용사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의료지원 사업을 펼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최희승기자 srchoi@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with details on location, size, and pric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nd a section for '부동산경매 전문회사 에셋코리아'.